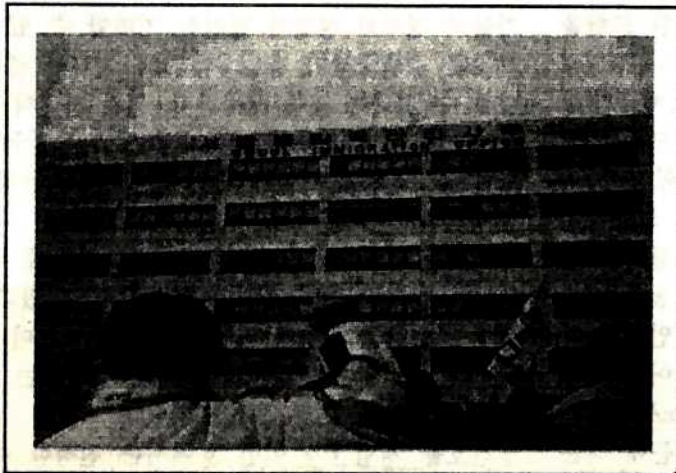


V MIGRANT WORKERS VOICE 이주노동자연대신문

제 2호(한글판)

발행:이주노동자의 목소리 편집팀 / TEL:02-985-9061 / Email: vmigrant@hotmail.com

2001. 4. 1



**안정된 삶과
노동권을 짓밟는
단속과 추방을
중단하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이번호의 기사들

- 발간사
- 우리의 주장
- 공장에서는 지금
- 알아줍시다 - 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인가
- 공동체 탐방 - 재한 네팔인 공동체, 네팔인 불자 공동체
- 이주노동자 공동체 소식
- 특집 - 해외 이주노동운동 소개 (1)
- 한국 노동자들은 투쟁하고 있다 - 대우자동차 투쟁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한다”

[편집팀: 성거르서(네팔)]

전세계의 늘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숫자는 매일매일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자본가들에 의해 유린되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주노동은 개발도상국에서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단면이다.

자본가들은 전지구적으로 그들 사이에서 경쟁하며 더 많은 이윤을 갖기 위한 야망으로 모든 노동자들을 짓밟고 있다. 한국에서처럼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10년 전부터 이곳 한국에 오기 시작했으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로 불리워진다. 왜 우리는 불법이 되었는가? 우리 모두는 왜 우리가 여기서 미등록으로 남아있는가를 알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로 가르고 차별한다. 또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의 전략을 알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설령 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자본가들의 정책결정에 저항할 어떤 민주적인 통로도 갖고 있지 않다. 많은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국적과 종교 그리고 지역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작은 단위로 나누어져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자본가에 대항한 어떠한 힘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노예로 자본가들에게 억압당하는 노동자라는 사실로 같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권리를 위한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간의 갈등과 자본의 차별을 일으킬 수 있게 만든다. 가령 한국인 노동자들이 장시간 저임금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신해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을 한다면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권리를 쟁취하는 노동자로서 살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한국인 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우리의 힘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한국인 노동자들과 연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될 것이

기 때문이다. 수 차례 우리는 한국인 노동들과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은 말이지 행동은 아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인 노동자들과 관계를 확장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야 할 때다.

여태까지는 NGO들과 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 주로 임금체불과 산재 등의 경제적 요구를 도와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집중단속과 출입국의 강제퇴거 그리고 기만적인 고용허가제와 같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에 의해 위기에 놓일 일상적인 위협에 직면해있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그것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지난 창간호에서 말한바와 같이 “강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의 힘으로 보다 약한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지배할 수 있다” 고 했다. 그것은 송출국들이 유입국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비판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간 자원의 수출은 약소국에서는 이미 정부의 장사가 되었고 유입국들은 그들을 노동자로 활용하고 경제의 경호원처럼 이용하고 있다.

창간호를 발행한 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에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동지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 해주고 있으며 멀리 부산과 대구에서도 격려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편집팀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창간호를 경험삼아 이번 호에서는 진정한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로 거듭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담았다. 특집기사로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운동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이후에도 간간이 실을 예정으로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한국의 노동법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산업현장에서 부딪히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우리의 법적 권리에 대하여 다음호에서도 계속 다룰 것이다. 그리고 국적을 초월하여 우리 이주노동자 간의 연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편제되어있는 공동체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였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신문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신문은 오직 여러분의 목소리이고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점점 더 우리의 단결된 힘은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강하게 방어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는 항상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옹호한다. **MWV**



한국에는 불법체류 미등록상태인 18만명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약 30만명이 이주노동자로서 살아가며 일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약 1억 3천만명의 인구가 고향을 떠나 이주노동자로서 법적, 사회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로서 일하고 있다. 그들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이주노동'이라는 낯선 도전을 감행한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유입국 정부들은 흔히, 돈을 벌어왔으니 돈이나 벌다가면 된다고 말하며 이주노동자를 '돈벌레' 취급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이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법적 제도적 권리로부터 소외시키고 있으며, 아무리 오랜 동안 그 사회에서 살아가며 그 사회에 기여하였다고 하여도 특히 제 3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이들이 과연, 왜 이주노동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가. 이들은 모두가 가족을 버리고 조국을 등진 배신자이며 '돈벌레'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싶은 욕망이야 있었겠지만 그런 개인적 욕망의 배경에는 '값싸고 이용하기 쉬운' 이주노동력을 원하는 자본과 유입국 정부의 구조적 유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주노동이란 어떠한 모순에 기인한 것인지 알아보자.

자본주의는 만들어질 때부터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예비군' (노동력의 저수지)를 두었다. 100명의 노동자가 필요한 일에 70명만 고용하여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면서,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및 실업노동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산업예비군' 으로 두어 70명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그들을 저임금으로 묶어두었다. "뭐, 월급을 올려달라고? 일하기 싫으면 나가, 너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라는 잔인한 사장의 말들은 150년 전이나 현대나 똑같이 전세계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정리해고를 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어 하루아침에 노동자들의

"추방"이라는 간단한 조치로 그들을 그 사회에서 제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송출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대개의 송출국은 초국적 자본이 제한적으로 투여한 자본에 의해 성장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정치와 경제는 세계 금융자본과 미국,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적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의존적인 저발전 국가로서 농민은 토지를 빼앗기고 노동자 민중은 일할 산업기반이 적기 때문에 빈곤률과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더불어 세계자본에 유착한 송출국 정권은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도 손쉽게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하여 자국 노동자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자국 노동자들이 불법브로커에 속아 많은 돈을 날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떠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더라도 상관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보내오는 송금에 철저히 세금을 매기는 것이 그 예이다. 송출국은 자국의 가난과 실업을 구제할 '경제역군' 이라는 미명으로 등을 떠밀고, 유입국은 합법적 불법적 입국 경로에 대하여서는 적당히 눈을 감은 채 '인간이 아닌 노동력' 으로서만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주노동자의 정확한 존재조건이다.

한국 정부를 보자. 한국 정부는 10년 전 광산업종에 합법적인 이주노동자를 유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일단 공식적인 유입은 포기하였다. 그러나 관광비자, 친지방문 비자(중국동포에 대하여)를 남발하고 출입국관리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여 3D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이 정착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또한 편법적인 노동인력 유입정책으로서 '연수생제도' 라는 것을 두어 합법적인 노예제도를 마련하고 합법 노예 30%:불법 노동자 70%의 구도를 지난 10년 간 유지하여 왔다. 애초부터 '값싼 노동력' 을 이용할 계획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이나 인권에 대하여서는 전혀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편리한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난



97-98년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인 1차 경제위기 시에 확인되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추방정책(벌금 면제를 미끼로 한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 및 출국기간 설정, 이주노동자를 해고하고 한국인 노동자를 대체 고용하는 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 혜택, 강력한 단속과 출국조치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의 70%가 추방되었다. 3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는 10만명으로 줄어들었고 남은 10만명도 단속과 실업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2%대를 유지하던 한국의 실업률이 5%를 넘어서면서 한국 정부는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고 이를 조금이나마 회피하고자 화살을 이주노동자에게 들렸던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IMF가 요구하는 정리해고, 공기업의 해외매각과 같은 구조조정의 칼날을 노동자에게 휘두르면서 끌어들이는 해외자본으로 인하여 잠깐 경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자 다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확대되었다. 99년 8월 경 언론은 1일에 100명씩 들어오고 있다고 보도하여, 급증하는 이주노동자 추세를 알렸다. 지금은 27만여 명이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있다. 이 용가치가 있으면 유인하고 마구 유입하다가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냉정하게 추방해버리는 자본주의 국가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떠한 미래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의 삶은 불안하기만 하다. 최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밝지 않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해 말 국내외적으로 비난의 소리가 높은 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고용허가제의 본질은 현재의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모두 추방하고 새로 들어오게 되는 합법 노동자를 단지 한 공장에서만 일하게 함으로써 통제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 3권을 준다고 하였지만 '고용중지 시 정의행위를 금지'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노조 결사의 자유는 커녕 맘에 안들면 언제든지 짜르고 추방시킬 수 있는 연수제도보다도 더욱 악랄한 노예제도에 다름아니었다. '고용허가제'는 연수생 장사로 거액을 챙기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다가 온 선거에 표를 의식한 민주당측의 포기로 무산되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 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연수제도가 폐지된다는 사실에만 집착하여 '고용허가제'를 지지하고 나선 반면 정작 이주노동자의 요구가 전혀 모아지

거나 반영되지도 않았으므로 이주노동자의 이해를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으로 나아갈 기회를 한 번 잃은 셈이 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외국인력'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몇가지 점에서 포착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외국인력' 활용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수의 불법노동자와 소수의 합법노동자 상태의 비율을 바꾸려고 한다. 이미 두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고용허가제'를 다시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기협측의 잇권을 인정하는 속에서 연수제도의 변형을 확대할 것이다. 즉 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배합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2+1제도를 2+3 또는 3+2의 형식으로 합법적인 체류 및 노동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미 지난 고용허가제 도입시기 야당에서 검토되었던 안이다.



한국 정부는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필요에 의해 양산시켰으면서도 이제와선 내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 활용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노동권이 진전되는 방향으로 바뀌는가 하는 두가지 중요한 점에서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양산하였으면서도 이제와서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내몰려고 하는 의도는 몇가지 현재의 정책에서 알아볼 수 있다.

첫째, 노동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연수생 노동자보다 미등록 노동자의 법적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실제론 적용이 되진 않고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산업재해 보상법 적용(95년), 근로기준법 인정(98년) 등을 허용하게 되었고 합법적 신분의 연수생노동자보다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이러니를 한국 정부 스스로 시인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많은 법적 권리를 주면서까지 이주노동자를 활용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자본가들의 속성이다.

둘째, 지난 12월에 시작하여 이제적으로 3개월이 넘도록 (통상 1개월) 진행하고 있는 '강력 단속 기간' 운영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미 그들의 공장에서 또는 집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한 채 수갑에 채워져 연행되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고 바로 강제추방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최근 경기도 화성에 개소한 '외국인 보호소'는 그 규모가 웬만한 교도소 수용능력에 버금간다. 최근에 잡힌 우리의 친구들은 모두 그곳에

수용되고 있다. 이 보호소를 채우기 위하여 더 많은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 친구들이 연행되고 구금될 것이다. 소수의 불법체류를 용인하더라도 그들이 소수이면 관리하고 추방하기 용이하며 그들을 사회적 범죄자로 몰구실이 생기는 것이다.

셋째, 출입국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지난 3월 초에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 이주노동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이동 상담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그들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하여 이동상담소를 개설할 만큼의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동시에 그들은 언제나 이주노동자의 편이 아니었다. 그들의 속셈은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거주와 노동현장에 대한 더 많은 정보수집으로 언제든지 일격에 많은 이주노동자를 내몰려고 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최근에 법무부가 내놓은 출입국관리법 개정 입법에 고안은 불법취업과 불법 고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단속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구속과 비인격적 대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들이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99년 말, 안산지역의 어느 상담소에서는 실업상태로 출국을 기다리던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노동자는 평소에 '불법체류자'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매우 비판하고 있었는데 당시 출입국관리소가 상담소 바로 앞에서까지 동료들을 연행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들이 받는 신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매우 큰 것이다. 일하다가도 거

리를 지나다가도 집에서 갑자기 닥쳐올 수 있는 연행과 추방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해 말에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정책을 위한 한 TV토론회에 출연한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누가 우리를 불법으로 만들었는가" 하고 당당히 말하였지만, 방청석에 앉아있던 기업주 대표들이 불법체류자가 공영방송에 나와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112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일도 있었다. 기계에 조이는 나사보다 더 간단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으로 이주노동자를 대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저항하여야 한다. 우리는 '노동력'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오게된 것은 세계적인 자본의 제 3세계 지배정책과 한국 정부의 유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불법체류자로 만들어서 활용해왔다. 이제 우리 스스로 당당해 져야 한다. 우리는 세계자본의 희생양인 동시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노동자"이다.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 죄악이지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에 대하여서도 요구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부러먹고 내팽개칠 생각인가. 우리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라.", "차라리 18만 불법체류자를 다 잡아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너희가 정책을 바꿔라!"

이것이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다.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65%에 달하는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자격 사면 투쟁은 이제보다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체류자격의 안정없이는 '노동 3권'도 모래 위의 집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권 쟁취투쟁과 함께 가야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인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호소한다. **MWV**

알 ■ 아 ■ 불 ■ 시 ■ 다 ■

앞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연재 기사를 실겠습니다 - 편집자주

- 1)근로기준법이란? 2)근로계약 3)임금 4)노동시간 5)휴일·휴가 6)여성노동자보호
- 7)퇴직 8)해고 9)산재<1> 10)산재<2> [가안]

☞ 근로기준법이 뭐니까?

→ 전태일을 아십니까?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봉계 공장에서 일하던 22살의 노동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하였고 산화하였습니다. 이후 그의 분신을 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러합니다. '근로기준법'이란 노동조건을 최저기준을 정하여 지키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만든 법률입니다. 비교적 잘 만들어진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 노동자들이 이 법을 현실적으로 쟁취하는 데는 수많은 투쟁이 있었습니다.

☞ 그럼, 우리와 같은 '불법체류자'도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물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제 16조)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이며 이 법률을 적용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연수생'의 경우도 마찬가

지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0여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지 않고 '불법체류자' 혹은 '연수생'으로 부르면서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아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줄곧 제기되자 노동부는 지난 1998년 10월부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는 지침을 각 노동사무소에 내려 법에 따른 권리구제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연수생은 이 지침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수생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더 나아가 미등록노동자와 함께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반드시 쟁취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나요?

→ 5인 이상 일하는 사업장은 전부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5인 미만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는 부분적용되고 있으며 부당해고, 퇴직금, 각종수당, 유급휴가, 여성노동자보호 등 중요한 권리들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현실을 볼 때 이는 한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 일단 우리가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기 전에 사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 3조) 또한 사장은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합니다.(제 5조) 따라서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임금 등으로 차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ILO 제 111호에도 똑같이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오버타임이나 휴일근로는 '강제근로금지'(제 6조)라 하여 사장이 일반적으로 강요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거나 어떠한 이유로도 사업장내에서 폭행을 할 수 없습니다.(제 7조) 취업을 알선한다는 이유로 돈을 받는 브로커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제 8조) 이를 법에서는 '중간착취'라 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국적을 막론하고 이런 브로커들이 많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전태일 열사에게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염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고 산재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는 모두 전태일이며 그의 꿈을 실현할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다음 호부터는 '근로기준법'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화 혹은 팩스 혹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직접 상담도 드리겠으나 이 지면을 통해 당신의 법적 권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MWV

한국노동자들은 싸우고 있다

자본가정권의 대우노동자에 대한 도전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도전이다!

대우 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
[리포터: 이수미(한국)]

대우자동차부도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본의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수년동안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노동으로 창출되어진 모든 부와 권력을 움켜쥐었던 대우자동차의 김우중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세계경영인이라는 찬사를 받는 동안 대우자동차의 노동자는 그 그늘아래 가려져 신음하며 허리가 꺾이도록 일만했던만큼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리해고"통지서였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마치 김우중이 회사경영을 잘해서 돈을 번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죽도록 일만했던 죄밖에 없던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모든 임금삭감과 각종형태의 정리해고를 받아들이고 자본의 부당함에 절대로 항의하거나 투쟁을 아예 포기하라고 노동자들을 협박하였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라도 보존받기 위해 자본의 가하는 모든 협박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참아왔지만 그럴수록 자본은 노동자들의 더욱 짓밟고 쥐어짜다. 급기야 지난 16일 1750명의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자본에 저항에 대항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미 정리해고대상자중에는 산업재해양종인 노동자와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인이 된 노동자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나게 되었다. 대우자동차의 부도이후 수많은 하도급노동자들이 일순위로 팔렸으며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들도 공장밖으로 쫓겨났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팔리고 있을 때 대우의 노동자들은 제발 자신은 정리해고대상자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처음에는 과감한 투쟁에 나서는 것을 주저했다. 하지만 자본은 너나할것없이 과감히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으며 이미 더 이상 밀릴 곳이 없었던 대우자동차의 노동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자본에 노예처럼 자본에 굴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자동료들과 단결하여 투쟁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고 죽을 수 없기에 결사항전의 자세로 투쟁에 나섰다.

자본은 초과이윤 창출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를 생산의 주인에서 생산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하락시켜 왔다. 최근 대우자동차 노동자 1,750여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자본이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파업을 방해하려는 출근버스를 저지하는 조합원과 가족들 ▶ 경찰은 노동자, 시민, 학생을 물어 죽이려 달려드는 개와 같았다 ▼



전체 노동자를 고용불안 상태로 몰아가는 것과 더불어 자본이 이윤창출에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음에 분명하다. 자본과 정권은 수없이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본의 칼날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국적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이윤창출이 가능하다면 어제의 정규직이 오늘의 비정규직으로 어제의 계약직이 도급 하청으로 바뀌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문제와 직결된다. 수십년간 일했던 공장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내팽겨쳐진 노동자들이나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자본가의 요구에 순응하는 노동자들이나 자의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본의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여전히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회사이름이 바뀌고 월급이 깎이는 노동자들이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임금과 체불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이 느끼는 문제는 동일하다. 아무런 이유없이 팔리는 노동자가 항의라도 하면 금세 권력은 경찰을 동원해 아주 폭력적으로 해결해 버린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들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냉혹한 현실인 것이다.

현재 대우자동차노조는 산곡동 성당을 거점으로 하여 매일 집회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거대한 투쟁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부평으로 모이고 있다. 하지만 자본은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거대한 투쟁의 물결을 만드는 것이 두려워 투쟁에 합류하고자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막고 있다. 이미 수년동안의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던 정부와 자본은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노동자들이 수 천 수 만명이 단결하면 결코 꺾일 수 없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부평의 대우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노동자, 학생들을 불법적으로 강제연행하고 검문하고 있다. 정부는 경찰헬기까지 동원해 철통같은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지만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연대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경찰의 폭력적인 경계를 뚫고 전국의 노동자들이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속속 모여들고 있으며 전국 10개



지역에서 항의집회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금속사업장에서는 일제히 부분파업을 단행하는 등 투쟁의 물결은 더욱 커져만가고 있다. 서울, 경기 지역 곳곳에서 분노한 노동자, 학생동지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조직하고 있으며 전 투경찰에 맞서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내고 있다.

또한 자신의 남편, 아버지의 부당한 해고에 맞서 대우노동자 가족들이 대책위를 꾸리고 투쟁에 합류하였다. 이렇게 대우자동차노동자들을 선두로 전국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격렬한 투쟁에 나서고 있는 동안 대우의 회장 김우중은 하루 몇백만원의 호화호텔에서 여가를 보내며 부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왔다. 이에 대우자동차노조는 김우중 체포결사대를 구성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곳곳에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분쇄투쟁의 정당함을 알리고 있다.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자연대투쟁은 확산되어져야 한다.

대우자동차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공격은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며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문제와 직결되어있음을 분명히 하고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고용안정 쟁취",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근로자파견제 철폐하라", "폭력경찰의 노조탄압 분쇄하자", "노동법개악 저지하자"는 요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규모있고 강도높은 투쟁들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서로 굳건히 단결해야 하며 명확한 노동자의 생존권적인 공동의 요구를 전면내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사 내지 일부정규직만의 이해요구를 전면내내 내걸고 투쟁한다면 그 투쟁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더욱 확산된 단결력을 모아내고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 노동법개악과 더불어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노동자대중들의 힘과 단결을 아래로부터 모아 노동자연대투쟁으로 나아가자.

우리 이주노동자들도 당장은 그 투쟁의 대열에 집단적으로 결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우자동차노동자동지들의 투쟁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투쟁, 노동자 연대의 정신일 것이며, 투쟁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자신의 권리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는 뼈저린 교훈이 아니겠는가?"... MWV

공동체 탐방 <1> 이주노동자의 자주적 조직 - 공동체!

NCC

재한 네팔인 공동체

[리porter: 찬드라(네팔)]

먼저 한국에 있는 많은 네팔이주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애정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국에 사는 모든 친구들의 진정한 동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는 모든 네팔친구들이 1993년에 건설된 재한네팔인공동체(Nepalese Consulting Committee, 이하NCC)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NCC는 어려움에 고통받는 네팔노동자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것을 중점으로 만들어졌으며,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만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때로는 NCC가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리더십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또다른 문제들을 안고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는 모든 네팔노동자들이, 2001년 1월 14일에 8차 NCC가 건설되었고, 더욱 강하고 활동적인 모습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네팔노동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더 상세한 NCC의 활동 정보와 프로그램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우리 NCC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 포인트에 의해 두 종류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 장기프로그램

(a) 미래에는 우리 모든 네팔노동자들이 모여 NCC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바를 토론하고 이야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b) 우리는 한국에 있는 다른 여러 종류의 네팔인공동체와 좋은 협력관계를 맺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 우리는 NCC의 재정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함께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d) 우리는 모든 네팔노동자와 함께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켜가기 위한 투쟁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e) 우리는 한국에 네팔대사관을 건설하기 위한 과정을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2. 단기프로그램

(a) 먼저 우리는 단일하고 힘있는 NCC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b)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지역의 지부를 건설하겠습니다.

(c) 네팔노동자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NC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d)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든 네팔노동자들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NCC이고 싶습니다.

(e) 우리는 모든 네팔노동자들뿐 아니라 타국의 이주노동자들과도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노동자임으로 우리는 반드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BF

네팔 불교인모임

[리porter: 성거르서(네팔)]

한국에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구성되게 되면 거기에는 그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규율과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나라별 공동체와 모든 이주민들이 스스로 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몇몇 한국 NGO들 즉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의 도움으로 혹은 자체적으로 이러한 모임 만들기에 참여했습니다. 원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활동에 따라 단체를 구성한 것입니다. 한국에는 많은 네팔 이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각기 기반을 달리하는 많은 네팔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네팔 불교인 모임(NBF; Nepalese Buddhist Family)은 네팔인들의 공동체 중의 하나로서 몇몇 네팔인들의 노력과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인드라 구룽(Indra Gurung)씨를 회장으로 1994년 11월 26일에 서울에 있는 차브야 칩 마당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이 모임의 주요한 목적은 전 세계에 불교를 전파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책에서도 많이 잘못되어 있듯이 부처의 출생지가 인도가 아니라 네팔의 룸비니(Lumbini)라는 것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기원전 623년의 네팔과 룸비니는 세계의 불교신자들에게 가장 신성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NBF는 한국에 사는 모든 네팔 이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건 고통을 받거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네팔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NBF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세미나, 문화기획, 여행(성지순례)계획들을 세우고 실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는 다르마그란드(Dharmagranth)의 말씀에 의해 밝혀진 길을 따라 나렌드라 구룽(Narendra Gurung) 회장의 지도하에 200여명의 회원들과 그에 버금가는 수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NBF의 4대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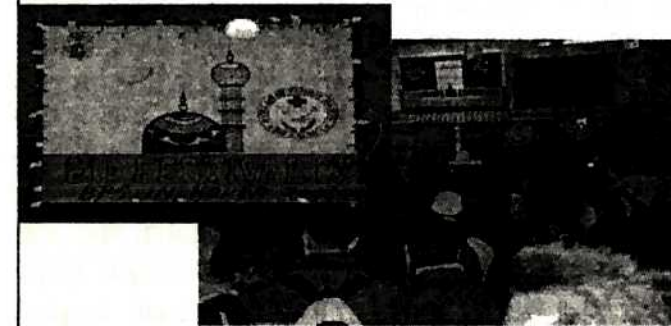
1. 회장 나렌드라 타무(Narendra Tamu)
2. 부회장 비쉬누 타무(Bishnu Tamu)
3. 서기 산타 림부(Santa Limbu)
4. 서기보조 산자야 타무(Sanjaya Tamu)
5. 재정 푸르나 림부(Purna Limbu)
6. 회원 무크타 타무(Mukta Tamu)
7. 회원 데브 타무(Dev Tamu)

<E-Mail: NBF@yahoo.com>

우리들의 공동체 소식

◆ 방글라데시

이드무바락 축제



지난 3월, 28일 방글라데시 공동체 BPS는 방글라데시의 설날과 같은 이드 축제를 마석 지역의 한 공장에서 가졌다. 이 행사에는 700여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었고, 민중가수 연영석 동지와 락밴드 천지인이 연대공연을 펼쳐 더욱 뜻이 깊었다.

◆ 필리핀

농구대회 [리porter: 헬렌 오브레로(필리핀)]

필리핀 사람들이 운동경기로 매우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농구이다. 필리핀에 가보면 여러분은 많은 농구장에서 시멘트 바닥에서 모래 바닥 혹은 공원에서 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이 이곳 한국에서도 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26개 팀이 참가하여 3월에서부터 10월까지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이 농구시합은 무엇보다도 체력단련을 통한 필리핀노동자들의 운동실력을 높이기 위해 계획되었다. 두번째 이유로는 자칫 흐르기 쉬운 비행이 아니라 운동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이유는 필요할 때 노동자들에게 항상 도움을 주는 카톨릭 정의평화 공동체의 긴급재정에 쓰일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카사마

코 공동체는 늘 이주노동자들을 돕고 이들의 어려움을 돕는 조직임을 표방해왔다. 하기에 운동을 통해 최소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주노동자 친구들을 위해 약간의 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시합에 참가하기를 권하였다. 카사마코는 활동의 의지가 좋다면 어떤 그룹과도 협력하고 있다.

필리핀 대사관의 외면

지난 2월 27일 엘리자베스 아티엔자는 서울 쌍문동 소재 한일병원에서 아이를 분만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녀는 지난 2000년 12월 5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 왔다. 그녀는 출산일조차도 저녁 8시까지 단추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임마가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는 '저산소증'으로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출산 후 16일만에 죽고 말았다. 두 시신은 현재 송환을 기다리며 한일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이에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얼마의 돈을 모았으나 병원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이다.

카사마코 공동체 실무자들은 시신의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하기 위해 바로 대사관으로 달려갔다. 왜냐하면 이는 자국 시민을 돕는 필리핀 대사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그들을 외국으로 내몬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해외노동자들에게 연간 120억 달러를 받아왔으며 외국국 아래 ATN이나 국가원조를 통해 모든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기금으로서 2억 페소를 예산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필리핀 대사관과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동안 그녀와 아이는 비싼 영안실료를 치르면서 주변 사람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필리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엘리자베스 아티엔자와 아이의 즉각 송환을 요구하는 데 동참해주시고. 그리고 이를 요구하며 대사 주아니토 자라사에게 항의서신을 보내거나 필리핀 대사관에 직접 항의전화를 합시다

☞ 필리핀 대사관 노무관실 - 02)572-3655

◆ 네팔

NCC, 8주년기념식 [리porter: 성거르서(네팔)]

N.C.C의 신입집행부가 일을 시작한 지 두 달이 넘고 있다. 공동체는 모든 네팔노동자들에게 헌신하고 다른 공동체와 유대를 넓히기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벌일 것이다.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새로운 지역 지부의 건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더십 또한 전보다 나아진 모습이다. N.C.C는 네팔의 설날을 맞이하여 4월 15일에 공동체 8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신입간부들의 첫 번째 사업이다.

한편 N.C.C는 지난 3월 11일에 다른 나라의 공동체들과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공동체 B.P.S. 의 이드무바락축제에 참석했다.

미국 LA 시설관리 이주노동자의 파업

자본의 이윤 추구는 상품, 화폐자본의 전지구적 이동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전지구적 이동을 양산하고 있다.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에서 한국, 일본, 호주로 노동자들이 오듯이, 멕시코와 중미에서는 노동자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가고, 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으로 가고 있다. 노동자들의 이주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투쟁도 그만큼 세계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미국은 이주의 역사가 대단히 길고, 이주노동자들의 수도 많아 이주노동자 투쟁에서 단연 많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6월에 2만명이 이주노동자의 권리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한 것은 그전부터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전개되어 왔기에 가능했다. 2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시설관리 이주노동자들의 투쟁도 그 중 하나이다. LA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포함한 미국 이주노동자 운동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어떻게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인가. 어떻게 이주노동자들과 한국노동자들의 단결을 추동할 것인가. 이주노동자 대중운동을 가능케 할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운동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모범적 상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LA 시설관리 이주노동자 파업을 반드시 주의깊게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LA 시설관리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은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해 한국의 수많은 시설관리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상층의 관료화된 노조로부터 무시당했던 미국의 밀바닥 노동자들은 아래로부터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싸웠으며, 상층이 보수 정당에게 청원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투쟁없이 쟁취했다'는 태도로 투쟁을 전개했다. 이 파업은 미국에서도 노조 상층 간부들이 자본 및 정부와 타협하여 투쟁을 통제하면서 파업을 무력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시켜주고 있다.

세계 어디에서나 생존권을 사수하고 자본의 억압을 분쇄하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은 국적과 관계없이 하나이며, 고귀한 형제들이다. 우리 이주노동자 투쟁은 '노동자연대에 국경은 없다'는 정신으로 지구상의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기꺼이 연대할 것이다. 우리의 힘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 해외의 이주노동자투쟁을 한국 노동자들에게 알릴 것이며, 한국 노동자 투쟁을 세계 노동자들에게도 알릴 것이다. [편집팀]



2000년 4월 3일 수 천명의 LA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임금을 밀바닥 수준으로 묶어두려는 빌딩 관리 자본의 제안을 거절하고 파업에 들어갔다. 대다수가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이주해온 3000 남짓의 노동자들은 월요일에 LA 시내의 옥외 집회에 참가하여 압도적인 찬성표로 자본의 협상안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수천의 노동자들은 (파업이란 뜻의 스페인 말인) "huelga! huelga! huelga!"를 외쳤고, 파업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적색 카드를 흔들었다. 화요일에 시설관리 파업노동자들의 항의시위로 시내 교통은 마비됐고, 항구 고속도로와 파사드나 고속도로가 봉쇄됐다.

30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아르코 석유회사와 LA 타임즈 본사 건물을 포함해 호화로운 시내 사무실 빌딩들을 따라 파업행진을 했다. 파업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 서비스 노조(SEIU) 1877 지부는 이 파업은 금요일 LA에서 조직화된 8,700 노동자들이 모두 파업에 동참할 때까지 날마다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은 파업노동자들과 구사대간의 몇몇 충돌을 일으켰다. 보고에 의하면, 파업 첫날 파업 규찰대원 한 명은 차에 치였으며, 또 다른 한 명은 파업파괴자의 칼에 찔렸다. LA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미국에서 임금을 가장 적게 받는 대도시 시설관리 노동자들에 속했다. 시내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평균 시간당 6.8 달러를 받았고, 여기에 그들과 가족들을 위한 얼마 안 되는 수당을 받았을 뿐이다. 시 외곽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가족 수당도 없이 훨씬 더 적게 최저임금만을 받았다. 아르코 센터 파업 노동자그룹 중 한 사람인 조세 모랄(44)은 16년 동안 그 일을 한 다음 시간당 9.4달러를 번다고 말했다. 그는 "비참하다. 우리는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 시날로아에서 온 다른 파업노동자는 "파업이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나는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샌프란 시스코

에 본사를 두고 몇몇 미국 주요 도시 전체에서 수백개의 빌딩을 청소하는 에이블(Able) 시설관리 회사와 덴마크의 초국적기업인 ISS를 포함한) 18개의 시설관리 자본과의 협상은 3월 31일노조 지도자들이 향후 3년 동안 시간당 1달러 인상을 요구했을 때 결렬됐다. 자본가들은 대다수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1년 동안 동결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에는 시간당 40센트를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그것은 전국적인 평균 임금 인상율의 2배다"라고 자본측 협상 대표인 닉 데이비스는 말했다. 데이비스는 또한 자신들이 처음에는 5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그때 가서 의미있는 양보를 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노조 대변인인 블랑카 갈레고스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 노동자들과 함께 늘어나기 전인1980년대에는 LA에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시간당 13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파업노동자들이 나누어준 유인물에는 임금이 너무 낮아 많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높은 방세를 지불할 수 없어서 가족, 친구, 낯선 사람들과 이중삼중으로 포개서 살 수밖에 없다고 나와 있다. 그 유인물은 또한,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노동과 초과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쓰여 있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파업 1년 뒤인 1981년 자본가들은 흑인 조직 노동자들을 멕시코와 중부 아메리카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로 대부분 교체했다. 그 다음 자본가들은 어떤 노조 건설 움직임에도 악랄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기층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이런 억압적 조건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국제서비스노조(SEIU)와 미국 노총(AFL-CIO)의 통제 바깥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에 무시당한 채로 남아 있다. 1991년 LA의 샌츄리 시티에서 시설노동자들이 시위했을 때 경찰은 가혹하게 탄압했다. 그 뒤 곧바로 국제서비스노조(SEIU)와 자본은 협약을 체결했다.

파업은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예를 들어 UPS 회사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팀스터 트럭운전자 노동자들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파업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수백 수천의 LA 노동자들(흑인과 백인,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윌 스트리트(미국 금융자본의 중심지)와 미국 기업들이 매우 기록적인 이윤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생활수준 향상을 요구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국제서비스노조(SEIU)와 미국 노총(AFL-CIO)의 전국 지도부는 거대 자본과 그 정치적 대변세력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그 어떤 진정한 운동도 억누르고 있다. 반대로 그 노조 간부들은 파업중인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민주당에 탄원해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화요일에, 국제서비스노조(SEIU)는 LA 주 당국에 찾아갈 노동자대표를 모았고, 관리들이 형식적인 파업지지 제스처를 취하자 그것을 칭찬했다. 그러는 동안 시와 주의 관리들은 구사대들이 파업대열을 둘러싸는 것을 경찰이 호위하도록

지금 공장에선

"사라져버린 그의 황금빛 희망"

[리포터: 찬드라(네팔)]

아다카리씨는 그의 부모와 함께 고향(네팔)에 있을 때 어떻게든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 가족과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꿈에 부풀어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황금빛 희망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한국에 오려 노력했다.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수많은 노력 끝에 그는 1998년 결국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오는 것에 성공했다.

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언어, 음식,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그의 꿈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1999년 4월 9일 그의 일터인 인천소재 쌍용정밀공장에 화재가 났다. 그 때문에 그는 패스포드와 12,500달러 그리고 많은 한국 돈도 같이 타버렸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알 수 없는 미래와 어둠으로 치달았다. 삶은 파괴되었지만 해체되지는 않았다. 그는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노력했다. 그러나 불행은 결코 한번에 멈추지 않았다. 인천과 김포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던 중, 2000년 8월 9일에 그는 산업재해를 당했고 그 사고는 다시 그의 꿈과 희망을 앗아갔다.

그 사고는 그의 황금빛 미래를 만들어줄 그의 손을 빼앗아가고 말았다. 지금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손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낙담하고 있다. 지금 그는 손과 모아놓은 돈이 없이 네팔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또한 한국회사들도 손이 없는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 사고회사 사장은 그에게 치료비를 주었지만 결코 손을 돌려주지 못했다. 그는 마치 전쟁터에서 총없는 병사와 같다.

지금 그의 꿈과 인생은 완전히 뒤흔어졌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손이 어디에 있다고 물지만 그는 손과 함께 그의 꿈과 희망을 잃었기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다.

했고, FBI 특별기동대가 파업노동자들을 습격하도록 했다. 이 LA 파업은 뉴욕, 시카고, 실리콘 벨리, 필라델피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0만여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다가올 몇달 동안 전개할 단체협상 투쟁의 서막이다. [KINA]

독자편지

노동권 쟁취를 위해 연대할 수 있고
자유로운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원한다.

다른 선진자본주의 국가처럼 한국에는 아주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연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용주들이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탄압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단체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이나 기타 한국인들의 지원단체가 설립되어 우리에게겐 반가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연대신문(MWV)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주노동자연대신문팀은 저를 비롯하여 저와 같은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의 일원으로서 그곳에서 일상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연대신문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향친지들을 떠나 와서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와 다른 국적 등등 다른 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노동권 쟁취를 위하여 연대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한국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우리와 갈 수 밖에 없는 그들의 고통도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단결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하여, 우리는 이주노동자연대신문과 동지가 될 것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샤 갈

방글라데시/2000-3-24/부산에서

이주노동자연대신문 편집팀

편집팀 : 헬렌, 주다, 안돌란, 성거르사, 이수미

E-Mail : vmigrant@hotmail.com

주소 : (142-103) 서울 강북구 미아3동 121-18, 3층

전화 : 02-985-9061

팩스 : 02-981-0963

이주노동자 연대신문(MWV)는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주노동자신문 1호를 성공적으로 모두 배포한 것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신문을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이 신문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노동자 연대신문은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는 비록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라면 한국을 비롯해 어디에서건 그리고 언제건간에 우리 모든 노동자들은 다양한 문제점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함께 대처해 나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일하면서 혼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의료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력 등과 같은 문제들의 희생양이 됩니다. 우리 회원들 중에 몇몇은 노동법과 인권에 대한 전문가들이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물어보시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대처해나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에게 편지를 주세요.

이주노동자신문은 한국어와 영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로 동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평가와 비판, 제안들을 환영하며 또한 여러분의 기고문이나 예술작품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이 신문을 만드는 데 일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MWV를 정기 구독하시고 싶으신 단체나 개인 그리고 기부금을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